

EYA 중국 도서 소개

안녕하세요?

EYA 에서 보내드리는 2015 년 11 월 둘째 주 중국어권 뉴스레터 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된 도서의 검토서 신청 및 문의는 이메일 newsletter@eyagency.com 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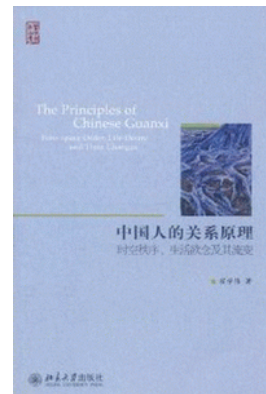
제목 : 《中国人的关系原理》

가제 : <중국인의 관계 원리>

저자 : 자이쉐웨이 (翟学伟)

분량 : 375 페이지

출간일 : 2011년 5월



중국 사회를 움직이는 ‘관시’를 파헤친다

"관시(关系)"는 1970년대 말 이후 중국 사회과학 영역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현재는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넓게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로 정의되는 이 개념에 관해 여러 학문 간 토론이 있었지만, 내포된 의미나 특징 및 기능 등에 대한 해석은 모두 모호하고 사람들의 의견 또한 분분하다. 또한 이 해석의 대부분은 묘사의 범위에 정체되어 있다.

저자는 "관시(关系)"를 중국인과 중국 사회를 인식하고 깊이 연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삼아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두 가지 시각을 결합하였다. 이를 통해 관시의 속성이나 시공간적 차원, 중국인 생활의 성격 및 인생의 의미 등에 대한 각각의 독창적인 연구를 해왔다. 이 책은 "관시"에 내포된 중국의 문화, 사회구성, 네트워크 운영, 행동 전략 및 관시 역학 등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평한 관찰, 권위의 전달, 허황된 욕망의 표현, 문화 정체성의 위기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의미에 대한 설명을 담아낸다. 관시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독자들이 보다 완벽하고 분명하게 중국인의 사회생활과 관시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자 소개>

자이쉐웨이(翟学伟):

1960년 11월 남경 출생

1988년 남개대학 사회학과 졸업

1991년 법학 석사학위 취득

1998년 남경대학 역사학과 입학 박사로 재직

2002년 사학박사학위 취득

현직 남경대학 사회학원 교수, 심리학과 주임, 박사 학위 지도교수, 및 중국 사회심리학회 이사
겸임, 강소성 사회 심리학회 이사장, 강소성 사회학회 이사, 교육부장 창장 학자 성취상 특별 초
빙교수

대표작품: 《중국인의 관계 원리》 《인심, 체면과 권력의 재생산》 《중국인 행동의 논리》 등

<목차>

제1편 학과의 입장과 시각 확립

사회학의 비판-개체의 입장에 근거한 관시

중국인 연구와 사회 심리학: 계승과 개혁

관계의 특징: 특수주의 혹은 보편주의

제2편 관씨와 권력의 개념분석과 안건연구

"관씨"(관계) 인가, 사회자본인가

사회자본에서 관계로의 전환: 중국 중소 기업 성장의 안건연구

중국 사회 중의 네트워크와 권위: 개념, 안건 및 분석

제3편 관계의 구성과 운용

중국인 사회행위의 기본 구조와 운행 법칙

"관계" 연구의 탈식민지화와 이론 재구성

신문의 운행 방향

제4편 관시 동력학

중국사회에의 공헌, 국한과 이론유산

제5편 사회 변혁속의 관씨

제목 : 何以笙簫默

가제 : 하이생소묵



저자 : 고만 (顾漫)

장르 : 소설

분량 : 243 페이지

출간일 : 2011년 1월

You Are My Sunshine, 한 남자의 7년 간의 기다림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맨스 소설 1위

동명의 드라마는 역대 중국 현대극 시청률1위를 기록, 한국에서는 MBC에서도 방영된 화제작

주인공 ‘조목생’은 7년 전 대학교 입학식 날, 학교에서 잘생긴 얼굴과 뛰어난 두뇌로 유명한 법과대학 선배 ‘하이침’에게 첫눈에 반한다. 그 후 목생은 이침을 맹목적으로 쫓아다니지만 이침은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 하지만 밝고 순수하고 당당한 목생의 모습에 이침은 서서히 빠져들고 둘은 귀여운 사랑을 시작한다. 그러나, 여동생은 아니지만 이침과 함께 자란 ‘허이매’의 질투와 거짓말로 인해 오해를 하게 된 목생은 이침을 떠난다. 7년이 지난 후, 지난 날의 오해 때문에 미국으로 떠났던 목생이 중국으로 귀국하게 되고, 둘은 우연히 재회한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어서 전도유망한 변호사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침과, 부잣집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힘든 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목생. 둘의 만남은 우연으로 끝나는 듯 보였지만 이침이 잃어버린 지갑에 있던 목생의 사진 덕분에 두 사람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무뚝뚝하지만 단 한번도 목생을 잊은 적이 없던 이침. 그는 다시 돌아온 목생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목생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목생에게 청혼하고, 둘은 결혼하게 된다. 결혼 후에도 이침과 목생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되지만, 이침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목생을 의심하지 않는다. 소설은 이렇게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침이 보여주는 변함 없는 사랑과 목생을 향한 무한한 믿음, 따뜻한 시선을 그려낸다. 드라마에서는 이민호와 함께 영화를 찍어 한국팬들에게도 익숙한 종한량이라는 중화권 스타가 이침역을 맡아 많은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소설의 제목인 <何以笙箫默>은 작가가 중국 현대시의 개척자로 불리는 쉬즈모의 <재별강교>라는 시에서 착안한 것으로, 중국인들은 이를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되었는데, 왜 이 사랑을 끝내려 하는가’로 해석하고 있다.

<저자 소개>

고만은 중국 젊은이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영향력 있는 작가로 손꼽힌다. 하이생소목을 포함하여 현재 그녀의 작품 대부분이 드라마 혹은 영화로 제작되었다.

